제1803호 2023년 11월 26일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 16:24)

기도는 영적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합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도로 담아내야 합니다. 성경통독이 마무리 된 이 시점에 기도에 우리 자신을 더 깊이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제2차 유아 세례식**

일시: 12월 3일(주일) 찬양예배 시

한규삼 담임목사 동정

학습안식

11월 21일~12월 1일

성탄트리 사진 컨테스트

기간: 12월 17일(주일)까지

내용: 경관 조명과 잘 어울리는 성탄 트리 사진 제출

제출 방법: 구글폼으로 링크 접속하여 제출

만나홀(식당) 바닥공사 안내

공사기간: 11월 27일(월) ~ 12월 1일(금)

- 공사기간 중 만나홀은 폐쇄됩니다 .
- 11월 29일 수요예배 후 중식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하 주차장 환경 개선 공사에 따른 협조 안내

지하2층 폐쇄: 11월 6일(월) ~ 12월 3일(주일) 주일 주차 불가

지하1층 폐쇄: 12월 4일(월) ~ 12월 30일(토) 주일 주차 불가

공사기간 중 가급적 대중교통, 카풀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70주년 전교인 성경통독 완료 및 수료식 안내

42주간 진행했던 70주년 전교인 성경통독을 마쳤습니다. 수료식까지 2주 동안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 주셔서 수료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식 일시: 12월 8일(금) 금요집회시 참석대상: 2023년 성경통독 완독자

- 완독자들에게 미니 수료액자를 드립니다.
- 아직 완독하지 못하신 분들은 12월 8일(금) 수료식 전까지 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서리집사 후보자 교육 및 면접 일정

2024년 신임서리집사 후보로 선정된 성도들을 위한 소정의 교육이 있습니다. 교구와 부서에서 추천받은 후보자는 교육과 면접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일정

2차: 11월 26일(주일) 10:00~11:00

장소: 제3교육관 지하 2층

대상: 2024년 신임서리집사 후보자

2. 면접 일정

2차: 11월 26일(주일) 11:00~12:00

장소: 제3교육관 1층

대상: 11월 19일, 26일에 신임서리집사 교육을 받은 후보자

방법: 면접 장소에 도착한 순서대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2024년 충현교회 제7기 제자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 1부, 배우자 동의서 1부를 작성한 후 제출

신청 및 모집: 12월 24일(주일) 까지

모집안내

1. 남제자반
   - ① 주일 16:30~19:00
   - ② 목요일 19:00~21:30
2. 여제자반
   - ① 화요일 10:00~12:30
   - ② 수요일 14:30~17:00
   - ③ 목요일 10:00~12:30
   - ④ 여제자 65+반 (수 14:30~17:00)
3. 여직장인반
   - ① 화요일 19:00~21:30
   - ② 토요일 10:00~12:30

Copyright© 2023 충현교회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40(역삼동)☎ 02-552-8200 발행인: 한규삼 편집인: 양효민 편집: 김상래

지난 주일(11월 19일) 설교 되새기기

감사, 감사, 또 감사

(골로새서 3:15-17)

감사만 잘 해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에, 성도로 하여금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감사주일은 꼭 필요합니다.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를 잊으신 성도들께는 감사의 회복이, 감사생활을 잘 하고 있으신 성도들께는 더 깊은 감사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의 강점과 특징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만한 좋은 유산이 풍성한 교회이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임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 1:20)" 골로새서에는, 제가 사랑하는 요한복음 1장 1-14절의 노래는 물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빌립보서 2장 5-11절의 노래보다도 더 웅장한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6권의 성경 중 영적으로 가장 깊이 있고 심오한 책이자, 예수님 중심적 교훈으로 가득한 책인 골로새서에 감사에 대한 교훈이 풍성한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골로새서에서 강조하는, 감사에 관한 세 가지 교훈에 대하여 나누어 보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 1:12)" 성도의 첫 번째 감사 조건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8)"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 1:13-14)"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 속한 우리를 한 번에 집어내어, 아들의 나라로 경쾌하게 옮기신 모습은 구원에 대한 감동적인 선언입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짐으로써 성도는 기업의 부분, 곧 아들의 나라의 상속권을 얻게 되었기에,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가에서 양 손 가득 바닷물을 퍼 올릴 때 손가락 사이로 거의 다 빠져나가고 남은 분량의 물이 아니라, 넘실거리는 바다와 같이 상상 그 이상의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합 3:17-18)" 비록 이 땅에서 물질을 비롯한 다른 것들을 가지지 못하였더라도,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면 감사할 조건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한 신앙의 성숙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 2:6-7)"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후에야 성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으로 나아감이 신앙의 근본이자 감사가 풍성해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사함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골 2:1-5)"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임과 감사함을 받음이란, 그리스도를 입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 덧입혀져 예수님 안에서 행하게 됨으로 감사함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 성도의 캐릭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5-16절)" 골로새서 3장을 통하여 성경이 강조하는 감사에 대한 특별한 교훈은,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통하여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사의 방법을 제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캐릭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자, 찬양과 감사로 성도의 삶을 채워가라는 의미입니다. 입술로 울려 퍼지는 곡조의 찬양은 아닐지라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충만함이 가득한 삶이 곧, 감사가 캐릭터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 받은 교훈 중 지금도 기억나는 몇 가지 중 하나는 "비범해지기 위해서는 평범해야 한다. 평범 가운데 있는 비범을 배워야 한다"입니다. 바로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와 대조되는 불평과 불만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생활이 기록된 출애굽기와 민수기입니다.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가득해진 불평과 불만은 불순종으로 이어지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감사를 통하여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시며,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찾되(골 3:1),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며(골 3:5),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골 3:9),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라(골 3:10)고 말씀하시는 선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야 하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용납은 그를 받아주는 마음이며, 용서는 누군가를 좋게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수로 섬길 때, 제자들이 모두 영어에 서툴렀기에 그들의 답안지를 채점할 때면 낙제에 가까운 답안이 적지 않았지만, 용납하고 용서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 안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조차, 용서하고 용납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할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허락하신 구원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린 내린 성도이자, 감사가 삶의 캐릭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규삼 담임목사

주간 충현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Thanks, Thanks, Thanks, Again

(Colossians 3:15-17)

Rev. Kyu Sam Han

Thanksgiving week in which the meaning of gratitude is ruminated on is absolutely necessary since saints can lead good lives of faith by giving thanks well. Celebrating Thanksgiving week, I hope the restoration of gratitudes will be present to saints who forgot thanks and the deeper gratitudes to saints who practice lives of thanks well, too. A while ago, I was asked a question about the strong merits and characteristics of our church. I appreciate that the church which has abundant heritage to inherit to the next generation and is especially loved by God, and whose owner is God is our church.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to himself all things, whether on earth or in heaven, making peace by the blood of his cross.(Col 1:20)" Praise toward Jesus is recorded more magnificently In Colossians than in the song of John 1:1-14, which I love, and in the song of Philippians 2: 5-11, which says, 'have the same mindset as Christ Jesus'. It is a natural conclusion that there are bountiful lessons about gratitude in Colossians, which is not only a spiritually profoundest and most unfathomable book but also a book filled with Jesus-centered lessons. That's why welcoming Thanksgiving, I'd like to share three lessons about gratitude Colossians emphasizes.

Gratitude for salvation

"giving thanks to the Father, who has qualified you to share in the inheritance of the saints in light.(Col 1:12)" The first condition of gratitude for saints is gratitude for salvation they have received.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your own doing; it is the gift of God,(Eph 2:8)" It's because salvation is not what we've won with our force but a gift from God. "He has delivered us from the domain of darkness and transferred us to the kingdom of his beloved Son,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e forgiveness of sins.(Col 1:13-14)" The sight that God picked us up from the domain of darkness at once and transferred delightfully to the kingdom of his Son is a moving declaration of salvation. Since saints obtained a part of the inheritance, that is, the heirship of the kingdom of his Son by being transferred to the kingdom of the Son, saints cannot but thank God who fills them overflowingly. This is because God allows us unimaginably great grace like the sea of rippling waves, unlike the amount of water left after drifting away from between fingers when we scoop up the sea water with both hands full at the seaside. "Though the fig-tree does not bud and there are no grapes on the vines, though the olive crop fails and the fields produce no food, though there are no sheep in the sheepfold and no cattle in the stalls,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ur.(Hab 3:17-18)" It can be said that the condition for gratitude is enough if we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kingdom of his Son and received the inheritance of God, even though we do not have other things including materials in this world,

Maturation of faith through gratitude

"So then, just as you received Christ Jesus as Lord, continue to live your lives in him, rooted and built up in him, strengthened in the faith as you were taught, and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Col 2:6-7)" The confession,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is the greatest confession of faith which saints can offer. It's because after receiving Jesus as our master, we can receive the Holy Spirit. Saints should be rooted in Jesus and built up and strengthened in the faith as they were taught, and lead lives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I hope you believe that to acknowledge Christ is the master of saints' lives and lead Jesus-centered lives is the rudiment of faith and the way overflowing with thankfulness. If so, what is the method of receiving gratitude? "I want you to know how hard I am contending for you and for those at Laodicea, and for all who have not met me personally. My goal is that they may be encouraged in heart and united in love, so that they may have the full riches of complete understanding, in order that they may know the mystery of God, namely, Christ, in whom ar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I tell you this so that no one may deceive you by fine-sounding arguments. For though I am absent from you in body, I am present with you in spirit and delight to see how disciplined you are and how firm your faith in Christ is.(Col 2:1-5)" To accept Jesus as the Lord in life and be thankful implies putting on Christ. Gratitude arises plentifully within us when we put on Christ and act in Jesus.

Gratitude, the character of saints

"And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to which indeed you were called in one body. And be thankful.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in all wisdom, singing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with thankfulness in your hearts to God.(vs 15-16)" The special lesson about gratitude emphasized through Colossians chapter 3 is realized at last through the deep meditation of the words. The Apostle Paul does not command to thank. Nor does he propose a way of giving thanks. Paul just exhorts 'to become a person giving thanks'. It means that gratitude must become our character and that the lives of saints must be filled with praises and thanks. The life that exalts God from the heart and that is filled with fullness God gives, though not melodious praises through lips, is the appearance of saints whose character is gratitude. "And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everything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v.17)" A saint is a being who gives thanks in all circumstances in the name of Christ. When I was young, one of the lessons I received from my father among a few lessons that I still remember, is "You have to be ordinary to be extraordinary. You have to learn the extraordinariness in the midst of the ordinariness". I think it is the very life of a saint giving thanks.

The place where grumbles and complaints that are contrasted with gratitudes appear most in the Bible is Exodus and Numbers which recorded the lives of the Israelites in the wilderness. Grumbles and complaints caused by difficult circumstances tend to lead to disobedience, so we can be aware that a life obedient to God is maintained through gratitude. I hope you believe that God the Father who establishes, keeps, and completes the covenant is trustworthy. The reason that we are able to obey God is because He is trustworthy. The good person who says, Seek the things that are above(Col 3:1), Put to death what is earthly in you(Col 3:5), You have put off the old self(Col 3:9), Have put on the new self, which is being renewed in knowledge after the image of its creator(col 3:10), is Our God. To become those who give thanks to 'God, we should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us, bear with each other, and forgive one another. To bear with each other is a heart that accepts each other, and to forgive one another is to think of someone favorably. When I ministered as a professor in U. S. A., students were all poor in English, so on marking the answer sheets, there were not a few answer sheets near to failure, however, when I saw them with bearing and forgiving heart, I could find correct answers even among them. When we remember Jesus who forgave and bore with us even when we had complaints, we can become heartily thankful. Thankful for salvation that has been granted, I bless in the Lord that we all become saints deeply rooted in Christ and that gratitude becomes the character of our l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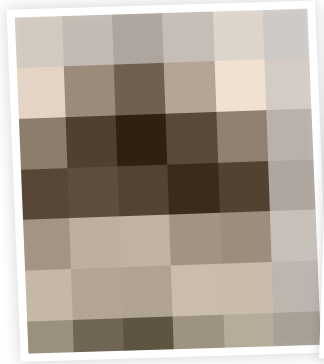
영역·이율의

23년 충현 평생 대학원 가을 학기(10기)를 마치며

23년 평생 대학원 가을 학기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학기였습니다. 코로나로 닫혔던 대면 강의가 시작되었고, 움츠렸던 많은 강의가 활기차게 열렸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강사님들이 함께 으쌰으쌰 열심히 참여하시고, 다양하고 풍성하게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2018년 7개 강좌로 시작했던 평생 대학원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도 이겨내며 2023년 가을 학기에는 38개 강좌로 성장하였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편의성을 고려해 강의 시간을 수, 목, 금으로 확대하여 강사님들과 실행위원들이 섬겨주셨습니다. 교회 안의 많은 전문 강사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자원 봉사하는 마음으로 강좌를 맡아 주시고 그동안 목말랐던 성도들이 대폭 지원 수강해 주셔서 각 강좌마다 차고 넘치며 풍성했습니다.

평생 대학원은 영성학부(기초 헬라어, 기독교 세계관), 건강학부(건강걷기 교실, 수지침, 건강 스트레칭&근육 저축), 교양학부(교정 메이크업, 스피치와 리더십, 시낭송·성시낭송,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자녀 양육, 닥종이 공예, 서예, 수필/자서전 쓰기, 언약을 기억하는 마음 여행, 사귐의 대화, 에세이 교실, 스마트폰 앱 활용, 스마트폰 초급반, 책나눔, 색연필화), 음악학부(우쿨렐레, 기타, 즐거운 성악 발성, 팬플룻, 플룻, 만돌린, 하모니카, 찬양 QnA, 재미있는 교회 음악사), 어문학부(기적의 수어 첫걸음, 찬양 중국어, 영어 성경 암송, 일본어 초급, 일본어 중급)로 다양한 영적, 육적 유익이 있었습니다.

타교회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좋은 프로그램에 감사하며 참여하셨습니다. 종강 예배 때는 각 강좌마다 배운 것들을 전시하거나 발표회를 진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수강생들의 후기를 나눕니다.



에세이 교실 강좌를 마치며 - 신소자 권사

우리 교회는 역시 수준 있는 교회다. 평생 대학원의 강의는 성도들의 정서를 함양하며 격조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성경이 세계문학의 모티브임은 평소 익히 알고 있는 바였다. 그 맥락에서 나는 문학 전반을 다루는 에세이반에 등록하여 수강하였다. 평소 글을 잘 쓸 수 있기를 갈망하였으나 확실한 길잡이가 없어 안타까워하던 나에게 참으로 소중한 기회였기 때문이다. 에세이 반에서의 공부는 코로나로 피폐해진 심신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강의가 있는 수요일이면 신이 나서 교회로 향하였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강의는 늘 기대 이상으로 유익했다. 올바른 어휘 선택과 문장 공부, 단락 쓰기를 비롯한 글의 구조에 대한 공부는 나의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강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평생 대학원이라는 이름에 손색이 없이 훌륭한 정연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공부한 수강생들께도 감사드리며 이 프로그램을 준비한 교회에도 감사드린다.

즐거운 성악 발성 강좌를 마치고 - 김혜란 권사

찬양을 할 때면, 늘 발성이 부족함을 느끼곤 하였기에, 평생 대학원 강의 목록에서 이상주 집사님의 '성악 발성' 수업이 있음과 그 수업이 수요일에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신청하게 되었다. 평소 이상주 집사님의 지휘하시는 모습은 항상 진심과 열정으로 충만해 보였기 때문이다. 신뢰와 기대가 가득함으로 시작된 수업은, 첫 강의부터 상상 그 이상으로 성악 발성의 핵심을 매주 재미와 감동으로 알려주었다. 한 명 한 명 세심하게 발성의 단점을 고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해 알려주셨기에 불과 5분만에 목소리가 200프로, 300프로 좋아지는 경험들을 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 강의 후엔 이론을 동영상으로 피드백을 해주셔서 이해와 기억에 큰 도움을 받았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 받은 우리에게, 값없이 이토록 귀한 강의까지 듣고 경험하게 해주신 주님과 충현교회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피아노, 뾰족함, 깊이있음, 열려있음, 인마스께라, 이~발음과 감정'을 이상주 집사님께 배우면 누구나 발성이 300퍼센트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된다. 찬양을 더 은혜롭게 올려드리고 싶은 충현교회 성도님들께 수강해보시길 진심으로 추천한다.

언약을 기억하는 마음여행 강좌를 마치고 - 정지서 권사

한번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는 나의 인생 여정들을 되짚어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오셨는지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이었다. 만약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있다면 부담없이 한 번 수업을 들어보길 권하고 싶다. 생각지도 못했던 내 인생의 한 모퉁이를 돌아보다가 나를 꼭 안아주셨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뒤늦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책 나눔 강좌를 마치고 - 장순양 권사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보다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살아가는 의문이다. 책나눔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생활에 부딪치면서 살아본 사람들이 책으로 기록한 한 문장, 한 단어들을 통해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었다. 그 분들도 나와 같은, 혹은 나보다 더한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과 삶에서 가졌던 의문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을 받았는지를 읽으며 많은 감동을 받았다. 교회에서 성도간의 교제는 교구나 찬양대 같은 봉사부서에서 한정된 만남이기에, 함께 신앙의 깊은 교제를 갖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책나눔에서는 세대를 초월하여 젊은 세대, 동년배, 선배 세대들과 함께 책을 읽고 자신에게 마음에 남았던 내용을 나눌 수 있었고, 야외 수업이나 전도사님께서 제시하는 다양한 미션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가 마음 아파한 부분, 감사한 부분을 거침없이 내놓게 되었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크리스천으로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 주 한 주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과 함께 일 주일의 한 번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2시간, 8주를 완전히 집중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2023년도 2학기 때 나누었던 책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나의 삶을 뒤흔드는 책이 되었다.

택하심을 따라 남은 6교구 바울전도회

2023년 교구 개편으로 3개 교구를 통합한 6교구 바울전도회 회원은 121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첫 월례회에 51명의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되기를 원하는 회원들의 열정과 순종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첫 모임은 앞으로 교구에 모범되고자 결단하는 시간이자, 모이기에 힘쓰기로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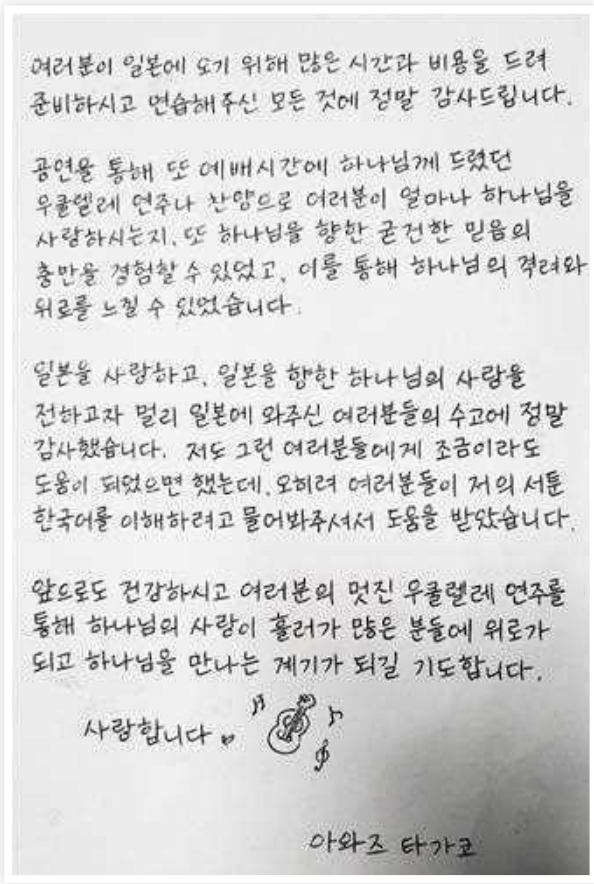
바울전도회에는 71세부터 90세가 넘는 회원이 모여 있다보니 고령과 건강문제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양 중인 분도 있으시며, 가정에서 현장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연세와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88세의 한 은퇴집사님은 지팡이를 의지하여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변 전도를 하셨으며, 85세의 한 은퇴장로님은 아름다운 특별찬양으로 교구모임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82세의 한 은퇴집사님은 빌립보서 전체를 거침없이 암송하며 교구모임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베푸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는 강북구 우이동 솔밭공원에서 전도회 야외예배 및 월례회를 진행했습니다. 모처럼 야외에서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방전도를 하고, 식탁의 교제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함박 웃음을 지으며 깊은 교제를 나누는 회원들을 보며, 성도의 모임이야말로 전도회를 부흥시키는 힘이자 충현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원동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와 유대교의 박해 가운데에도, 초대교회에는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충만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6교구 바울전도회가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열매를 맺어 충현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전도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6교구 정재복 은퇴안수집사

일본 3팀 선교 후기

- 일본 교토, 10월 25일(수) ~ 10월 30일(월) -


여러분이 일본에 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드려 준비하시고 연습해주신 모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연을 통해 또 예배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우쿨렐레 연주나 찬양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멀리 일본에 와주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그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의 서툰 한국어를 이해하려고 물어봐주셔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멋진 우쿨렐레 연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많은 분들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

아와즈 타가코

일본의 외적 문화와 신앙은 어떻게 다를까? 큰 기대와 복음을 향한 꿈을 안고, 일본 땅에 도착했다. 오사카 교회에서 준비해 간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찬양과 섞어 하나하나 펼쳐 보일 때, 그들의 모습은 반짝반짝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듯 하였다. 우리나라보다 몇 백년이나 먼저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음에도, 싹조차 틔우지 못하고 사그라지는 것은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너무 부흥되었던 나머지 국가에서 탄압을 했고, 순교를 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세 아이의 엄마가 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 순교했다는 순교담도 들었다. 장애인들과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할 때, 그들의 표정을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환한 모습으로 애정 어린 표현을 하며 같이 웃게 되니,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3일이 지난 후 교토에서 똑같이 "글 없는 책"과 더불어 찬양을 할 때, 기뻐하며 호기심을 보이는 성도들의 모습은 매우 아름다워 보였다. 교토의 교회는 선교사님께서 세우셨는데, 약 7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하는, 부흥이 잘 된 교회라고 했다. 하지만 복음이 심긴 후의 오랜 세월을 생각하면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일본에서는 노방전도가 힘들기에 관계전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복음이 널리 퍼지기까지 얼마만큼의 세월이 더 필요할지 생각하니 답답했다. 목이 곧은 백성을 꾸짖을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며 기대해본다. 교토 교회에서 일본선교사와 중동선교사로 나가셨던 분의 진심 어린 회개와 간증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 함께 울며 기도했던 시간도 기억난다. 일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더 퍼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해 본다. 문금안 권사

일본 땅은 생각만해도 가슴이 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세계에 손꼽히는 선진국임에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전 인구의 0.4%에 불과하다니 신기할 따름이다. 일본의 영혼을 위해 우리 팀은 기도와 찬양으로 많이 준비했다. 비록 언어의 벽은 있었지만,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음악선교라는 생소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게 하였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심도 보았다. 하지만 단기선교에서 당연히 하게 되는 노방전도를 하지 못했던 점은 너무 아쉬웠다. 일본 현지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만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 오사카 교회에서 나누었던 장애인 교우들과의 교제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그들과 함께 하며, 최선을 다하여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며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 위하여 더 많은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김옥임 권사

지하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협조 및 주차안내

■ **주요공사 내용 및 일정**

1. 공사내용 : 본당 지하1, 2층 주차장 바닥, 천정, 벽체 등의 환경개선
2. 공사기간 : 2023. 11. 6(월) ~ 2023. 12. 30(토)
   가. 지하2층 폐쇄 : 11/6 ~ 12/3 (주일 주차불가)
   나. 지하1층 폐쇄 : 12/4 ~ 12/30 (주일 주차불가)

■ **주차 안내 사항**

본 교회를 중심으로 동편(언주로 400m)과
서편(논현로 300m)의 간선도로변에
공휴일 주차(06시~20시)가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유의사항>
1. 구간 내 견인구역도 주차가능 (공휴일은 견인되지 않음)
2. 단 소화전 앞, 진입로 통행방해, 길모퉁이 주차, 유턴구역 주차 등은 견인될 수 있음

교회학교 반주자 모집

교육위원회(유치부, 유년부) 반주자로 봉사하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격: 충현교회 세례교인으로 음악 전공 (피아노 또는 작곡)
모집기간: 11월 19일(주일) ~ 11월 30일(목)
문의: 찬양위원회 간사 (☎ 내선 261 또는 010-2303-1063)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0261	원종후	유아부	
2	0341	박수현	고등부	
3	0818	김예겸	고등부	박준하
4	1004	박준우	고등부	이원준
5	1352	김이담	유아부	
6	1860	박태원	유아부	
7	1886	김종빈	고등부	

<가족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2004	최금자	기본과정	장연희
2	2007	김선귀	기본과정	장연희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2002	노승현	기본과정	

<차세대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975	이종현	청년3부	김영은
2	1987	김용모	청년2부	이세라
3	2008	손용년	청년1부	
4	2009	박효진	청년1부	

별세
1. 최혜영 은퇴권사(이진희 은퇴 선교사·이숙희 은퇴권사의 모친·강홍원 은퇴집사의 장모, 8교구) / 17일 별세, 23일 장례

교역자 동정
1. 윤성복 목사 사임 수봉산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담임목사로 청빙
2. 이일영 목사 부임 청년 1부 지도
3. 이영국 목사 부임 새가족 지도

예배 담당(11/29~12/3)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11/29	수요 I	아름다운 지혜 (전 7:11-14) 김주한 목사	강성은	정현애
12/1	금요집회	마음 다스리기 (잠 4:23) 위안복 목사	이일영	
12/3	주일 I	무엇을, 아브라함은 기다렸을까? (창 18:10-15) 한규삼 담임목사	김승래	이경환
	주일 II		정석훈	이양선
	주일 III		권순동	박성철
유아세례식	주일찬양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요일 4:7-12) 박성덕 목사	임진실	박명근

※ 설교제목과 본문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교구별 주력새벽기도(11/27~12/3)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27 (월)	이성환/이재학	욥 21:17-34	전교인
28 (화)	박요셉/임광신	욥 22:1-30	전교인
29 (수)	김승래/양계곤	욥 23:1-17	전교인
30 (목)	신경철/김기홍	욥 24:1-25	전교인
1 (금)	권순동/최은열	욥 25:1-26:14	1교구
2 (토)	김유석/김유석	욥 27:1-23	전교인
3 (주)	박요셉/박요셉	욥 28:1-28	전교인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9:00	본 당
	II	오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본 당
수요예배		오전 11:00(본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00	갈릴리홀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전 11:00	❶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❷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금주 화요집회 강사: 전영재 목사
금주 기도원 봉사: 5교구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사랑부	10:45~11:50 (성인)	사무엘홀(제2교 204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11:00~12:00 (아동, 청소년)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성경아카데미	12:20~13:30(에스라)	디모홀(제1교 401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12:40~13:40(아볼로)	디모데홀(제1교 304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새가족기본과정부	오후 12:10	베다니홀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엠마오홀
청 년 1 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11교구	오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청 년 2 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어와나부	19:10~20:50(금요집회시)	제 2교육관 4층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예꿈 양육부	(주) 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예꿈교실(제1교 702호)
청 년 3 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12교구(그루터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에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충현평생대학원	(목) 오전 11:00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섬 · 기 · 는 · 분 · 들

한 규 삼 담임목사

■ **시무장로**
임창식 행정위원 · 신광철 행정위원 · 이상석 행정위원 · 오순도 소망부장 · 양기수 충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교구위원장 · 이성섭 재정위원 · 장철규 건축위원 · 이보신 새가족위원 · 이상해 기도원원감
김성호 행정위원 · 조증민 전도위원 · 이상복 봉사위원 · 지규성 선교위원장 · 최민석 선교위원
김명성 아멘찬양대장 · 이창희 행정위원장 · 백봉선 재정위원장 · 박재현 행정위원 ·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홍기 감사위원장 · 송한천 5교구장 · 조윤준 할렐루야찬양대장 · 최현구 건축위원 · 남용승 봉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 변창대 세움위원장 · 허만선 충현중산이사장 · 안연식 10교구장 · 현준봉 전도위원
양효민 당회서기 · 박원화 봉사위원장 · 이상배 당회부서기 · 박명근 8교구장 · 김종훈 건축위원장
송영상 성경통독부장 · 전성욱 건축위원 · 박건일 4교구장 · 배종락 선교위원 · 김철남 안내부장
김희동 3교구장 · 홍금성 새가족위원장 · 강태영 외선부장 · 장기락 벧엘찬양대장 · 홍순길 교육위원장
정인욱 기획위원장 · 남중호 차세대위원장 · 윤순규 1교구장 · 김상열 찬양위원장 · 이경환 6교구장
이양선 헌금부장 · 박성철 11교구장 · 김열환 예배부장 · 김세종 선교위원 · 한홍연 임마누엘찬양대장
최규옥 7교구장 · 최승민 제자교육훈련부장 · 이석재 평생대학원장 · 송문식 중보기도부장 · 문영규 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 신현욱 차량안내부장 · 임병익 사랑부장 · 박노익 12교구장

■ **목사**
이기영 1교구 · 강성은 선교위원회 · 김주한 11교구 · 이성환 12교구 · 권혁근 7교구
윤성복 9교구 · 박동진 2교구 · 문진호 3교구 · 정석훈 8교구 · 김유석 에바다부
김상래 브릿지 · 전영재 10교구 · 박영환 6교구 · 위안복 4교구 · 윤준식 5교구
임대영 고등부 · 신경철 초등부 · 임진실 사랑부 · 김승래 신혼가정부 · 배진현 주간충현
박성덕 청년2부 · 권순동 봉사위원회 · 박요셉 청년3부 · 이다현 중등부 · 이일영 청년1부
이영국 새가족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 주은숙 6교구 · 이수경 평생대학원 · 홍명주 9교구 ·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 여정광 8교구

■ **교육목사** 선명환 외선부 · 최준호 소망부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 이영미 유치부 · 박예령 영아부

■ **협력선교사** 강기엽 윤해균 윤명범 강영미 한용관 최동현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란자야 라우단다쉬 베 웽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텔라

■ **지원선교사** 강영기 김경생 김신숙 김영암 김형건 박태연 안석렬 유재훈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요셉 홍경화